둘레, 고품격 토크 콘서트 '샘고을 달빛 풍류' 성료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둘레가 고품격 문화예술 인문학 콘서트 '샘고을 달빛 풍류'가 지난 11월 24일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의 밤을 감동으로 채웠다.

샘고을 달빛 풍류는 2021년 6월 24일에 첫 시작으로 가(노래, 성악, 소리등), 무(댄스, 한국무용, 발레 등), 악(국악기와 서양악기)과 함께 인문학 강의 등이 어우러진 공연이다.

이번 11월 24일 공연에선 대사습놀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김용호 정읍시립국악단장의 특강으로 샘고을 달빛 풍류의 막을 열었다. 이어 사단법인 둘레의 안수용 이사장과 사단법인 대사습놀이 보존회의 송재영 이사장의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1부 공연으로는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의 '눈뜨는 대목'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2부 공연으로는 특강에 맞춰 전통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휠러스의 '놀부 FLEX' 무대가 이어졌다. 휠러스는 '현대의 예술은 그 경계가 희미하며 정답이 없다'라며 국악, 서커스, 연극의 융합을 통해 관객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였다.

고품격 인문학 콘서트 '샘고을 달빛 풍류'를 주관·주최하는 사회적 기업 둘레의 안수용 이사장은 "샘고을 달빛 풍류는 한국의 공연 예술을 이끌고 갈 젊은 신진 예술인 및 중진 예술가들의 공연기회의 장을 마련코자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와 타지역 예술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서곡중 학생회 매점데이 수익금 기부

전주서곡중학교 학생자치회는 지난 9~11일 3일간 교내 매점데이 행사를 진행, 수익금 전액을 전주 효자5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2학년 학생회장단의 공약으로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결과 수익금 100여만 원이 발생,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신동준 학생회장은 "학생회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매점의 운영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이게 돼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원형 교장은 "공약을 지키고자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봤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뜻이 모인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기계공고,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지난 25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학교 인근 이웃 11가구에 연탄 5,800장을 전달했다. 연탄구입 비용은 '학교기업 우토리'에서 만년펜을 제작·판매한 수익금과 교직원 후원금을 통해 마련해 의미가 크다.

연탄봉사에 참여한 군산기계공고 학생은 "친구들과 땀을 흘리며 함께 이웃을 위해 봉사한 시간이어서 의미가 깊고, 올해는 작년보다 후원금액을 많이 모아 5,800장을 이웃주민분들게 나눠줄 수 있어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지난 16일 학교 봉사동아리인 4-H와 글꽃 동아리 학생 약 40여 명과 교직원이 함께 모여 10kg 들이 총 30box의 김장 김치를 신풍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

김종천 교장은 "나누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내 고향,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인성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북전주'

박준서 신임 북전주청년회의소 회장 취임

북전주청년회의소가 창립 46주년을 맞아 기념식·이취임식 행사를 지난 27일 전주 풍남동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 행사에서 박준서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2022년도 이임회장인 박광철 회장은 신임 박준서 회장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국청년회의소 제71대 신명식 중앙회장이 축사를 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북전주'라는 슬로건을 내건 박준서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에너지절약·농촌경제 살리기 전국 웅변스피치대회 개최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가 주최하는 '제39회 에너지절약 및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국웅변 스피치대회'가 지난 27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열렸다.

에너지절약 및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국웅변 스피치대회는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이하여 연중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국민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과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온 연사 103명과 내빈, 임원들을 포함해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웅변대회 전체 대상에 권민자(부안)씨, 전체 최우수에 김만기(정읍시)·김성동·최현식씨가 수상했다.

웅변부 대상에 송용섭(전주), 특상에 송석민(익산)·변숙경(군산)씨가 차지했으며, 서광원(전주)·임병아(전주)씨, 특상에 신미애(군산)·김계숙(익산)씨가 스피치부 대상을 수상받았다.

이어 시낭송부 대상으로 임여향(진안)·김유림(군산)씨, 특상에 조현자(군산)씨가 선정됐으며, 강사부 대상으로 탁정실(전주)씨, 특상에 전옥주(전주)씨가 선정됐다.

마술부 대상에 권미진(전주)씨, 특상에 소경희(전주)씨, 최우수상에 이선희(전주)씨가 차지했으며, 학생부 대상에 이시우(청주시 내곡초2)군, 특상에 김리아(서천군장항 중앙초등2)양이 차지했다.

끝으로, 김래언(새싹어린이집)군이 유치부 대상을, 노시우·문수호(새싹어린이집)군이 유치부 특상을 수상받았다.

이와 함께 진행된 공로 표창 수여식에서 오명근(전주)씨가 전주시장 표창, 황금석(김제)씨가 전주시의회의장 표창을 받았으며, 정상영(전주)씨는 웅변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병원 암 관리사업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앞장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전북지역암센터가 암 관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앞장섰다.

전북지역암센터는 본관에서 전라북도 국가암관리사업 담당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암 관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전라북도 내 암 관리사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올바른 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번 교육 주요내용에는 '2022년도 전북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전북지역암센터 전예령), 폐암의 이해와 치료(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이환진), 나만의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꿈드림원예힐링센터 유예진)'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정영범 소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에 올바른 암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도민의 암 발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가암관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 디지털 창의인재 경진대회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5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디지털 창의인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24팀이 지원해 코딩, 영상 콘텐츠, 메타버스, 파이썬 부분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 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코딩 △영상 콘텐츠 △파이썬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 3주간의 실무 교육 후 진행됐다.

한편 전주대 LINC 3.0 사업단(단장 주송)은 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재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대회를 운영했다.

대상은 코딩 부문에서 900점의 성적을 거둔 컴퓨터공학과 알고냥이팀(박용현, 전재호, 임재민, 옥준혁 학생)이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적십자 장수지구봉사회, 사랑의 밑반찬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전북적십자 장수지구봉사회가 장수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밑반찬 나눔 봉사는 적십자 '장수지구봉사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등 봉사자들이 참가했으며 '메추리알조림, 돼지불고기' 등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밑반찬 약 300여 개를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김광순 장수적십자봉사회 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으로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받고 이웃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적십자사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호원대 취업지원실, 모의취업 경진대회 성료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8일 오후 3시 총장실에서 호원모의취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9회 호원모의취업경진대회를 지난 17일 실시하였고, 시상식에는 참가자 43명 중 입상자 12명에게 총 상금 540만원과 상장을 수여했다.

교육혁신처 취업지원실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3년 만에 실시된 대면 대회였던 점도 주목할 일이다.

취업지원실은 대회 참가자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서 작성과 면접에 대한 컨설팅 등 총 4회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대회심사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고 각 40%, 60% 비중으로 평가하여 입사지원서와 면접에 있어 고른 역량을 검증했다.

대상 수상자인 간호학과 3학년 백모씨는 "이번 대회 준비과정과 참가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해졌고, 대회 직후에 진행된 전문 면접관의 피드백이 향후 면접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형 취업지원실장(교양과 교수)은"이번 대회가 기업의 채용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써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 취업지원실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 육성과 재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완산소방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사회적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운 겨울철을 맞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28일 전개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주완산의용소방대가 주관하고 전주119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김성희)의 후원으로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완산여성의용소방대원, 119시민안전위원회, 소방서직원' 등 약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완성된 김장 김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될 예정이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평소 매년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나눔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전주완산의용소방대원과 전주119시민안전위원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1천만원 상당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전주푸드경기장점 주차장에서 2022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을 28일 실시했다.

이날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황의옥 이사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유정희 센터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전북은행 방극봉 부행장,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전북은행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기부문화가 위축되어 혹독한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이웃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등 30여명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구매한 1,000만원 상당의 배추와 양념으로 직접 김치를 담갔으며,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주시 관내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방극봉 부행장은 "직원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담근 김치를 통해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장애인종합복지관, 따뜻한 겨울 아동 의류 전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용민)는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가정 아동 41명에게 겨울의류(롱패딩, 티셔츠 세트) 전달식을 28일 진행했다.

모금을 위해 네이버해피빈을 통해 개설된 겨울의류지원 모금함에 지난 9월 6일~ 10월 11일 총36일간 네티즌들의 기부로 모금이 진행됐으며, 특히 전북현대모터스FC의 공저금통 기부참여까지 더해져 목표금액을 초과한 총 천이백구십칠만구백원이 모금됐다.

겨울의류를 지원받은 초등학생 김00(13세)은 "헌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롱패딩이 부러웠는데, 따뜻한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아요"며 밝은 미소를 보였다.

전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박용민은 "앞으로도 장애인가정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항상 지지하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